

나의 독서일기 3_

백수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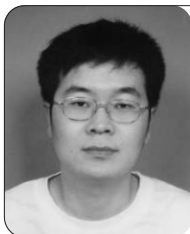
‘백수’는 중의적이다. 백수건달(白手乾達)의 줄임말이지만, 한달 수입이 백만 원[百收]인 한량을 일컫기도 한다. 물론 우스갯소리라. 백수생활 3년간 나는 ‘이십’ 수는 되었다. 형수님께서 매월 꼬박꼬박 챙겨주신 적잖은 용돈이 내 백수생활의 물적 토대를 이루었다. 생활에 여유(?)가 있다 보니, 도서관이 책 읽기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책을 사는 족족 다 읽었으나, 이제는 안 읽은 책이 더 많아졌다.

관찰은 헌책방을 발견하여 주로 이용했다. 헌책방에 있던 ‘오늘의 사상신서’를 좀더 많이 구입할 걸 그랬다. 양보다는 질 위주로 책

을 살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든다. 헌책 대여섯 권 살 돈으로 신간 한권을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게 더 좋았겠다. 그 헌책방은 장사가 꽤 잘 됐다. 까칠한 주인아저씨가 좋은 책을 모으는 감각이 있었다. 지금은 규모를 확장하여 새 책과 학습참고서 신간을 약간 싸게 팔고 있다. 장사, 여전히 잘 된다.

시마다 마사히코

시마다 마사히코의 『드림메신저』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에서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이다. 아마도 사서 읽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랬으리라.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앞표지 그림과 뒤표지 사진이 주는 차이만큼, 1권(아마도 1장이 아닐까)은 상당히 흥미도 있고 끄는 힘이 있었지만, 2·3·4권은 1권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풀리는 듯해 아쉬웠다.



최 성 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할 것도 없고, 사기자와 메구무, 마루야마 겐지 같은 일본 작가들이 1990년대 젊은 우리 작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 답답했는데, 시마다 마사히코를 자신의 창작 터전으로 삼는 작가도 나올 법하다. 하지만 시마다를 받아들이기에 우리사회의 터부들이 엄존하고 있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마다가 앞서 예로 든 세명의 일본 작가보다 우리 독자에게 아직 낯선 것은 파격만도 아니고, 그가 진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 사회와 출판』을 빌려 읽은 건 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서점에서 눈에 안 띄어서일 것이다. “p 53. <창작과 비평>의 70년대적 의의→박형복, 『출판운동의 변혁적 전망에 대한 모색』,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아침, 1995) 365면 볼 것.” 리브라리(Librari)는 라틴어로 고대의 필경사와 중세의 서적대여 및 판매업자를 뜻한다. “p 150. 1982년 창작과비평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주간이 구속된 사실.” 59쪽에 인용된 베르톨트 슈팡엔베르크라는 사람의 출판사에 대한 정의다. “한 출판사는 책을 발행해내고 이를 다시금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함께 모여 창조적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이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좀 있다 『현대 사회와 출판』을 구입했다.

『꿈꾸는 문인들의 거리』

두 권으로 번역된 조지 기싱의 장편소설 『꿈



꾸는 문인들의 거리』는 무척 흥미로웠다. 소설에서 발췌한 문장이 내 독서노트에 빼곡하다.

“매일 아침 사무실로 일하러 가는 사무원들을 내가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기나 해요? 그들은 하루에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마음가짐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그냥 무엇인가에 매달려 일만하면 되지. 그리고 저녁이 오면 일당을 받아들이고 편히 쉬거나 마음껏 즐길 수 있단 말

이오. 문학만으로 밥 먹고 산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미친 짓인가! 언제든지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몇 달이고 아무 일도 못할 수 있지.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야! 예술을 사고판다는 것!”(I: 72)

“여성잡지를 읽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확실한 것이 아니면 그저 짜증스럽게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그들은 특별한 생각들을 중오해요. 이런 글들을 쓰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사실, 대중전반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지속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지속적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거야.”(II: 188)

내가 발견한 오탈자 15개를 적어 출판사에 보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다.

고전읽기

‘내가 읽은 책들 1995’ 라는 제목이 붙은 독서목록에 따르면, 1995년 4월부터 12월까지 46권을 읽었다. 그 주요 책들의 면면이다. 『영화여 침을 뱉어라』(이효인), 『한 게으른 사

람의 이야기』(최승자), 『우동 한 그릇』(구리 료혜이),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홍세화), 『내 인생의 책들』(한겨레신문사), 김영현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와 『지난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 『경제학 철학 수고』(이론과실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박태원), 『문학이론입문』(테리 이글턴), 『역사는 끝났는가』(송두울), 『우정론』(F. 알베로니), 『자본론 I (상)』(비봉출판사), 『나와 함께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면』(김남주), 『생텍쥐페리의 편지』(수문출판사), 『러시아 아나키스트 1905』(폴 애브리치), 『문화의 수수께끼』(마빈 헤리스), 『김영삼 이데올로기』(강준만), 『푸코의 추(상)』(U. 에코), 『물의 여자들』(김향숙), 『외판 방』(신경숙), 『나는 아직도 봄을 기다린다』(김재호), 『우리의 사랑은 들꽃처럼』(정화진), 『악의 꽃』(보들레르),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민음사).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에겐 고전 세계명작이 제격이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스탕달의 『적과 흑』, 버지니아 울프의 『3기니』와 『자기만의 방』은 새삼스레 고전작가의 명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돈키호테』와 괴테의 『파우스트』 그리고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은 아직 절반밖에 못 읽었다. 『돈키호테』와 『파우스트』 2부는 나를 설레게 하나, 『마의 산』 2권 '등정'은 포기하려다.

백수생활 첫째, 자주 들르는 서점에서 <서평잡지>라는 책 소식을 접했다. 잡지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B4(아니면 A3) 용지를 두 번 접은 것이었다. 조금 있다 잡지 형식에 걸맞게 쪽수를 늘렸으나,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 늘어난 분량에다 신문과 잡지의 책 관련 기사를 전재했기 때문이다. 우연찮게 자원봉사자로 신간 안내를 쓰게 됐지만 1년가량 쓰다 말았다.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

고, 편집자와 견해가 달랐다. 그때 쓴 북 리뷰 두엇이 서평모임 이름으로 주간 부천 <시민신문> '주부에게 권하는 한권의 책'란에 실렸다. 1993년 6월 28일자에 실린 『또 하나의 입덧』에 대한 리뷰다.

『또 하나의 입덧』

방송의 오전 편성은 대개가 주부들 대상이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각 프로그램마다 주부의 편지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편지글 낭독이 들려오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다. 어떤 경우에는 편지글을 모아 책으로 내기도 한다. 『또 하나의 입덧』 역시 주부의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이지만 방송사가 편집한 것과는 성격이 다른 책이다.

『나의 신혼일기』 같은 것이 행복에 겨운 것이든 답답함의 하소연이든 스스로를 바깥으로 드러내는데 비해 이 책에 실려 있는 주부들의 글은 답답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라는 가치를 지닌다. 여기에 가족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웃과 사회로까지 관심을 쏟는 주부의 눈길은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주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튀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다. 스물일곱 명의 제한된 인원과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이 전체 주부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경험을 함께 갖고 있어 넓은 의미의 '후남이'들이라 할 수 있다. 딸로 태어나면서부터의 푸대접은 결혼, 임신, 입덧, 출산 등을 겪으면서 절망을 더하여 끝내는 아이를 만드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이르게 한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잃는

다. 이 책은 주부들이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으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 책에는 주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아내의 생각을 알고 싶은 남편, 어머니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자식들에게 쓸모 있는 이 책은 누구보다 주부 자신들에게 요긴한 이야기다.



사서교육원

일정한 직업 없이 만 3년을 보내고 백수생활 네 번째 해로 접어들자 이래선 안 된다는 자각과 함께 이래서 되겠느냐는 불안감이 들었다. 그래서 1996년 봄, 성균관대 부설 사서교육원에 등록했다. 1년 과정을 이수하면 준사서 자격증을 준다는 것에 끌렸다. 지금 생각하면 다소 안이하고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이었다.

한 학기 '원비' (등록금)가 백만 원 가까운 적잖은 액수였으나 교육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강의는 야간에 이뤄졌고, '원생'의 대부분은 의외로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이었다. 비전문인으로 도서관에 자리를 잡은 분들이 사서 자격증을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서교육원의 주된 기능 역시 '선 취업, 후 자격(교육)'인 것 같았다. '가방 끈'이 긴 교육생이 더러 있었다. 나는 어중간했다.

나는 한달 남짓 다니다 말았다. 그래도 사서교육원 1년 과정을 이수하여 준사서 자격증이 있는 출판 편집자를 만났을 때는 참 반가웠다. '동문'을 만난 것 같았다. 그해 4월 중

순부터 서평전문지 <출판저널>에 출근했다. 나는 그전까지 내가 <출판저널> 기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나의 예상치 못한 취업은 한마디로 운이 좋은 덕분이다.

1995년 가을쯤엔가 한국출판연구소에서 마련한 제1회 출판평론상에 응모했다. 나는 당선을 자신했지만, 심사결과는 '수상작 없음'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내 글에 '가작'이라도 주자는 의견이 2대 1로 부

결되었다 한다. <출판저널> 기자직은 일정한 인문적 소양을 요구하지만, 치우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기자의 드나들이 잦았다.

1996년 봄에는 두 자리가 비었어도 적당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 자리는 공채로 뽑고, 한 자리는 특채로 충원했는데 내가 특별 채용되는 행운을 안았다. 제1회 출판평론상 심사위원 중 한분이었던 <출판저널> 주간님이 내 글을 기억하고 연락을 주셨다. 면접을 본 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승을 올렸다. 나는 2004년 12월, 출저 『태마가 있는 책 읽기』로 2004년도 한국출판평론상 저작 부문 우수상 수상자가 되어 차후 인정을 받으며 맺힌 '한'을 푼다. 1995년도 한국출판평론상 응모작인 「'90년대 다운 성공'이 지닌 뜻-창작과비평사의 경우」는 이렇게 시작한다.

창작과비평사론

여전히 장인 정신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양서를 펴내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출판인에게

는 민망한 노릇이나, 1990년대를 대표할만한 출판사 세 곳을 꼽으라면 김영사, 해냄, 창작과비평사를 들겠다. ‘상품 차별화가 크고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이 높음’ 단행본 시장의 특성상, 어쩌다 책 한권이 베스트셀러가 되어도 단타에 그치고 마는 것이 대부분 출판사의 경우이고, 연속 안타를 쳐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건 베스트셀러를 양산해내는 일은 출판사의 역량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터트린 김영사는 줄곧 성공한 인물의 출세기와 성공을 위한 실용서 만들기에 힘쓴 결과,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이라는 1995년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신화는 없다』를 목록 상위권에 올려놓으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여자의 남자』로 순위권에 들어온 해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기어이 큰일을 해내었고, 『태백산맥』의 판권을 사들이면서 『아리랑』으로까지 베스트셀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창작과비평사는 『소설동의보감』(1990), 『서른, 잔치는 끝났다』(1994)로 문학부문을 평정하고,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2』(1993·1994)를 ‘국민도서’의 반열에 올려놓기에 이른다.

상기한 출판물의 면면은, 꾸준한 성공을 보장받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다. 기획에서 편집·제작에 이르기까지, 장르와 저자의 선별에서 장정·광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색조를 지키는 출판사가 독자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리라. 여기에다 출판요소 가운데 어느 한 분야를 특화시킴으로써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잘 팔리는 책’이 곧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좋지 않은

책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굳이 베스트셀러 만들기와 관련한 온갖 혐의점을 들추지 않더라도, 베스트셀러 안 읽기가 하나의 현명한 독서법으로 통하는 것이나 신뢰할만한 기관이 추천하는 권장도서에 베스트셀러가 드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어떤 법칙에도 예외는 있는 법. 좋은 책이면서 잘 팔리는 책은 엄연히 존재한다. 하물며 어느 한 출판사가 그러한 영예를 독식한다면, 한번쯤 눈여겨봄 직하지 않은가? 허나 창작과비평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가 이것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1970·80년대 치열했던 민주화운동의 어엿한 일부문인 출판운동의 한복판에 창작과비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1990년대 창작과비평사가 거둔 풍성한 수확은 출판운동, 나아가 민주화운동이 맺은 결실인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 성공을 1990년대 답다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출판저널〉 기자가 되면서 내 독서일기는 업무, 곧 공식적인 글쓰기로 대체되었다. 업무 외적인 책을 읽을 겨를이 없다. 그래서 읽고 싶은, 읽을만한 책을 골라서 ‘자체기획’을 하곤 한다. 요즘은 필자의 성향을 파악한 편집자들이 내게 알맞은 책의 리뷰를 맡기기도 한다. 올해 안으로 일곱 권이 될 내 책들은 나의 독서일기에 다름 아니다. ㊦